

 인천광역시	보도자료		 경 재외동포청 추 인천설치 확정!
	배포일자	2023년 5월 9일(화) 총 2매	
담당 부서 국제협력과	담당자	• 아시아팀장 • 담당자	이창훈 ☎440-3201 안권훈 ☎440-3205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도시점	15시 3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유정복 시장, 결연 35주년 맞은 일본 기타큐슈시 대표단 접견

- 인천-기타큐슈 직항 항공노선 재취항 및 자매결연 35주년 기념해 방문 -
- 양 도시 경제·문화·관광분야 등 교류증진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9일 인천경제청 접견실에서 일본 기타큐슈시 다케우치 가즈히사(武内 和久) 시장 등 대표단이 유정복 시장을 만나 양 도시의 경제·문화·관광 교류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.

이번 방한은 지난 2월 취임한 다케우치 가즈히사(武内 和久) 시장의 첫 해외출장 일정으로, 양 도시의 직항 항공노선의 재취항 및 자매도시결연 35주년을 기념해 방문 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인천-기타큐슈 직항 항공노선은 2016년 12월 첫 취항했지만,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약 3년 2개월 동안 중단됐다가 지난 8일부터 주 4회 일정으로 운항을 재개했다. 여름 성수기에는 주 14회로 증편될 예정이다.

특히 올해는 양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 35년이 되는 해로, 그동안 ‘인천시민의 날’ 과 ‘왓쇼이 백만 여름축제’ 상호방문, 공무

원 상호파견·단기연수, 박물관 상호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하며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.

또한, 양 도시는 자매도시 체결 35주년을 기념해 경제, 문화, 관광, 스포츠, 교육,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교류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.

이를 계기로 양 도시는 가교역할을 하는 정기항공편을 이용해 시민들의 관광 및 인재 교류 등을 더욱 활성화해 상호 교류 증진을 폭넓게 확대해 나가기로 상호 합의했다.

다케우치 가즈히사(武内 和久) 시장은 “취임 후 처음으로 자매도시 인천을 방문했는데 유정복 시장님의 환대에 감사하다” 며, “세계적인 국제공항인 인천공항과 기타큐슈 공항 간 직항노선이 재취항하게 돼 기타큐슈 시민들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매우 기쁘다” 며, “특히 올해 양 도시 간 자매결연 35주년을 계기로 더욱 인천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” 고 말했다.

이어, 유정복 시장은 “이번에 인천-기타큐슈간 직항 노선 재취항으로 양 도시 시민들의 방문 및 인적교류가 더욱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상호 매력적인 관광 인프라 정비 및 정보교류 등을 적극 협력하자.” 라며, “또한, 양 도시가 지난 35년의 우호를 토대로 긴밀한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면, 지역·글로벌 차원의 양 국가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도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” 이라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6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

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<http://tv.incheon.go.kr/>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